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를 확대하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 조합원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의 철탑 농성이 벌써 13일째에 접어들었다. 이들은 15만 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위험천만한 송전탑 위에서 찬바람을 맞고, 제대로 먹거나 자지도 못하면서도 “결코 내 발로 내려오지 않겠다”는 결의를 꺾지 않고 있다.

이들뿐 아니라 울산·아산·전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징계 위협과 손해배상 가압류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투쟁하고 있다.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굳건한 투쟁 덕분에 전 사회적 지지와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울산 공장 2차 포위의 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2천여 명의 노동자, 학생, 청년들이 모였다. 농성장에서는 매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고, 울산지역 단체들이 연대에 나서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과 함께 농성장을 사수하고 있고, 공동 출근투쟁도 벌이고 있다.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이 체포됐을 때는 이에 항의해 두 시간 잔업거부를 벌이기도 했다.

학생들도 연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건국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인천대, 한국외대 등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투쟁 지지를 위한 모금, 서명운동 등이 벌어졌

다. 고려대에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지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다

광범한 지지와 연대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전 사회적 초점이 되고 있다. 진보 후보인 심상정, 이정희뿐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안철수도 농성장을 찾아 지지를 표명해야 했다. 기습 연행된 박현제 지회장의 구속영장과 두 철탑농성자의 체포영장도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회피와 탄압으로 일관하는 사측

그러나 피도 눈물도 없는 정몽구 일당은 회피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10년 가까이 철저히 무시해 왔다. 사측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화하라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사측은 노동조합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합비 통장과 조합원들 월급 통장마저 가압류하는 등 탄압을 일삼았다.

경찰은 공장 안에 난입해 박현제 지회장을 연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사측은 탄압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현대차는 호황으로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고,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1만 3천여 명을 정규직화하는 데는 순이익의 9.6퍼센트만 있으면 된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불법파견 철폐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다. 온갖 차별과 비인간적 처우에 시달리며 낡물래 눈물짓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학생, 청년들이 이 투쟁이 꼭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희망을 현실화하려면 더 큰 지지와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7일 ‘현대차 울산 공장 3차 포위의 날’에 적극 참가하자. 각자가 속한 대학에서도 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자.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2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11월 11일 (일)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장소 : 전태일다리 (동대문역 8번 출구)

현대차 울산공장 3차 포위의 날
 일시 : 11월 17일 (토) 시간 미정
 장소 : 울산 현대차 공장 앞

대학에서 연대 활동이 시작되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지원하는 학생들의 연대 활동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주,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의 회원과 지지 학생들은 건국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천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신대 등에서 리플렛 반포·투쟁 기금 모금·지지 메시지 작성,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천만인 선언 서명’을 위한 홍보전을 진행했다.

많은 학생들이 현대차 사측의 탄압에 분노하며 선뜻 모금과 서명에 동참했다. 한 학교에서는 한 시간만에 10만원 가까이 지지금이 모였

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한 서명에 이를 만에 1400명이 동참하는 등 학생들의 공감과 지지를 느낄 수 있었다.

26일 울산 현대차 포위의 날 집회에서 학생들의 지지 메시지와 모금을 받은 현대차 노동자들은 매우 기뻐하였다. 송전탑 위의 천의봉 사무장도 전화연결로 “학생들의 활동을 잘 보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고려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결의문이 대표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런 지지 활동들이 더 넓게 확산되고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연대 합시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후원해주세요! 현대차 사측이 노동조합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합원들 월급 통장마저 가압류해서 투쟁 기금이 절실합니다.
 계좌 : (농협) 356-0706-1138-63 용석록

자신이 속한 학생회·동아리 등에 제안해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캠퍼스에 대자보와 현수막을 부착합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웹사이트에 지지 글을 올리고 지지 물품 등을 보냅니다.
 주소: 울산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웹사이트 : <http://hjbwtw.jinbo.net>
 이메일: hjbwtw@jinbo.net

인터넷 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각종 사이트에 지지와 연대 글을 올립니다.

송전탑 고공농성 중인 두 노동자에게 지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최병승 : 010-4108-3010
 천의봉 : 010-8660-8583

현대차 사측에 항의 전화를 합시다.
 현대차 고객센터 : 080-600-6000
 현대차 울산공장 : 052-280-2114

23번째 죽음과 김정우 지부장 단식

쌍용차 노동자들을 더는 죽이지 마라!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이 10월 10일 '해고자 복직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안타깝게도 23번째 비극적 죽음이 발생하면서 절박함을 더했다. 쌍용차의 '희망' 퇴직자였던 23번째 희생자는 강요된 퇴직 이후 스트레스와 각종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졌다.

2009년이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쌍용차를 인수해 기술만 빼가고 회사를 거덜 낸 상하이차는 막대한 이윤을 챙기며 '떡튀' 했고, 기막히게도 이명박 정부는 상하이차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일부 지분까지 보장해 우리의 세금 수백억 원을 챙겨줬다. 오히려 '함께 살자'고 요구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에 살인 진압을 자행했다.

이후 노동자 2천6백46명이 공장에서 쫓겨나가 족이 파괴되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의 원인 제공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무자비한 구조조정과 부채 정리로

“곡기를 끊어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는
살고 싶습니다.”

혈값에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는 재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적 압력 때문에 내놓은 쥐꼬리만 한 무급자 대책조차 '2014년 12월까지' '생산물량이 늘어날 때'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살인 진압'을 현장에서 지휘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 조현오는 쌍용차 진압에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얼마 전 열린 쌍용차 청문회에서도 그는 '테이저건을 쏘지만 빗맞았다'며 후안무치한 말들만 내뱉었다.

현재도 새누리당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한사코 반대하며 버티고 있고, '국민대통합' 운운하며 전태일 동상 앞에 온 박근혜 후보에게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던 김정우

지부장은 경호원에게 목살이 잡혔다.

김정우 지부장의 말처럼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기"다. "노동문제와 일자리 문제의 압축판인 쌍용차 문제야말로 지금 정치가 필요한 곳이며 해결해야 할 정치 사안"이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사실 해고자와 무급자 복직은 어렵지 않은 문제다. 정부가 지원을 하면 된다. 해고자 전체를 복직시키는 데 1년에 4백억 원도 들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에서 인건비는 1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이런 대안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는 대중투쟁에 있다. 그동안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22명의 죽음에 가슴 아파했던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쌍용차 문제가 부상할 수 있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담은 공지영씨의 소설 《의자놀이》도 십만부 판매를 돌파했다. 대학문 분향소는 정리하고, 비정규직, 노조 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거점이 되고 있다. 학생들도 이 투쟁에 힘껏 연대하자!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3000인 동조단식 문화제

11월 3일 (토) 오후 4시 서울역 광장
*동조단식자들이 1끼 식사비(5000원)를 모아 신문 광고를 낼 예정입니다.
*동조단식 참여 신청 : 010-5678-8630

이렇게 연대 합시다!

▶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요구 수용 촉구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 온라인 서명 : <http://victory77.jinbo.net>

▶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일일 동조 단식에 동참해주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한문 시민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단식하며 준비된 하루 프로그램 (간담회, 선전전, 서명운동, 저녁 문화제 등)에 참가합니다.

▶ 집회에도 함께해주세요!

3000인 동조단식 집회
11월 3일(토) 4시, 서울광장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대회
11월 24일(토)

스책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눈물과 죽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 발간: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 가격: 1천원

목차: 쌍용차 노동자는 왜 싸워야 했을까요?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정말 필요했을까요? / 정부는 왜 그렇게 '함께 살자'는 이들을 탄압해야 했을까요? / 해고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다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꿈이 아닙니다

-문의: 010-5678-8630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노동자들

99%의 의제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1%와 재벌들은 돈을 쓸어 담았지만 99% 노동자들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왔다.

하지만 이제 60일 남짓 남은 대선에서 이런 99%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시간이 흐를수록 '1%의 양초'로서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두 야권 후보도 분명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정치를 끝내겠다는 출마한 안철수는 막상 한미FTA나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서 1%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문재인은 집권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NLL 문제 등에서 우파에게 굴복하고 있다.

진보정당이 위기와 분열로 인해 유의미한 선거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구도는 우리를 짜증나게 해 왔다.

그런데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에 나서면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무려 5만 명이 결집한 총회를 성사시켰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무기한 단식과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탑에 올라서 투쟁을 호소하고 있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민영화 반대, 복지 확대,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등 투쟁을 준비하

고 있다.

이런 투쟁은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등 모호한 의제들만 떠돌던 대선 정국에서 '정리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민영화 중단' 등 99%의 진정한 목소리와 의제들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1%에 맞선 이런 99%의 투쟁들을 지지하고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런 99%의 투쟁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이며, 대선에서 누가 당선하든 관계없이 시작될 수 있는 구조조정과 고통전가 공격에 맞서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